

‘내 집 같은’ 장기요양시설 위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 5개 기관, 8개 유니트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6월 3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의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6월 25일(화) 총 8개 유니트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유니트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된다.

* 선정 유니트: 총 8개(부산 1개, 경기 5개, 전북·전남 각 1개)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붙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담당자	사무관	안희정 (044-202-351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담당	부장	권오진 (033-736-1906)



□ 추진 배경

- 요양 서비스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모델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내용) 침실 전면 1인실화*·공용공간 필수 배치 등으로 시설 인프라 강화, 인력배치·전문성 등 제고 통해 돌봄 품질 향상
- (사업기간·예산) 2024. 7. ~ 2025. 6., 약 10.6억원
- (사업대상) 총 8개 유니트

□ 주요 내용

- 입소를 새로운 생활 장소로의 전입으로 받아들이도록 전면 1인실화와 동시에 공용공간 확보 등을 통한 입소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 (시설기준) 1인실 원칙화, 침실·공용거실(중정형 배치) 면적 확대, 화장실·욕실(유니트당 1개 이상) 및 옥외공간 의무 설치
 - (인력배치)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요양시설 유니트 내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 (리더급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청구 이력 3년 이상 보유자, 참여기관장 자체 선정

** (유니트 개수 별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1개 유니트 → 1명, 2·3개 유니트 → 2명, 4·5개 유니트 → 3명